

석유제품 정밀도 비교시험 4-6월 실시

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자동차용 휘발유 등 연료유 및 LPG 시험분석 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석유제품 정밀도 비교시험을 4-6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4월25일 발표했다.

정밀도 비교시험은 관리원에서 배포하는 동일 시료의 옥탄가, 증기압, 황분 등 시험항목에 대해 각 시험실별 시험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비교해 오차 원인을 밝힘으로써 시험실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.

비교시험에는 관리원의 9개 시험실, 정유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27개 시험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, 석유품질 관리 멘토링의 일환으로 베트남 Quatest 등 국외 유관기관의 4개 시험실도 참여한다.

석유품질관리원 김동길 검사처장은 “시험분석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시험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교육 및 2차 비교시험 등 지속적인 Feedback을 수행해 시험결과의 정밀도 향상을 도모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8/04/28>